

2017 서울 사회복지직 9급 A형 해설

1. 밑줄 친 표현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사람은 입이 발아서 입맛 맞추기가 어렵다.
-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 ② 입이 거친 그를 흰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
- ③ 이번 일은 내가 허방 짚은 격이다.
-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 ④ 새참 동안 땀을 들인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
- 땀을 일부러 많이 내서 피곤을 풀다.

정답 ④

‘땀을 들이다’는 ‘몸을 시원하게 하여 땀을 없애다.’ 또는 ‘잠시 휴식하다.’를 뜻하는 말이다.

- ① 입이 발다: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 ② 흰 눈으로 보다: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
- ③ 허방 짚다: 발을 잘못 디디어 허방(땅바닥이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구덩이)에 빠지다. 또는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2. 다음 예문 중에서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 ②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
- ③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역 앞 우체통에 넣었다.
-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이다.

정답 ①

‘비가 오는’은 생략된 성분이 없는 동격 관형절이다.

- ② ‘새로 맞춘’은 목적어 ‘양복을’이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 ③ ‘길에서 주운’은 목적어 ‘지갑을’이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은 목적어 ‘사람을’이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3. 주어진 단어의 자음 두 개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낼 때, 모두 옳은 것은?

<보기>
하나의 음운이 가진 조음 위치의 특성을 +라고 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로 규정한다. 예컨대
ㅌ 은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① 가로 : [+경구개음], [-후음]
- ② 미비 : [-경구개음], [+후음]
- ③ 부고 : [+양순음], [-치조음]
- ④ 효과 : [-후음], [-연구개음]

정답 ③

‘부고’의 ‘ㅂ’은 양순음[+양순음]이고, ‘ㄱ’은 연구개음[+연구개음]이므로 [+양순음], [-치조음]은 적절하다.

- ① ‘가로’의 ‘ㄱ’은 연구개음[+연구개음]이고, ‘ㄹ’은 치조음[+치조음]이다.
- ② ‘미비’의 ‘ㅁ’과 ‘ㅂ’은 양순음[+양순음]이다.
- ④ ‘효과’의 ‘ㅎ’은 후음[+후음]이고, ‘ㄱ’은 연구개음[+연구개음]이다.

4. 밑줄 친 ㉠을 고려할 때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받침 ㅎ 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 ㅎ(하, 하)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 을 발음하지 않는다.
 [낱은[나은], 쌓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싫어도[시러도].....]

- ① 바지가 다 닳아서[다라서] 못 입게 되었다.
- ② 저녁 반찬으로 찌개를 끓이고[끄리고] 있다.
- ③ 가지고 온 책은 책상 위에 놓아[노아] 두렴.
- ④ 기회를 놓치지 않은[안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

정답 ④

‘싫어도[시러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겹받침 ‘ㅎ’은 발음되지 않고, 첫 번째 발음은 연음된다. 따라서 ‘않은’은 [아는]으로 발음해야 한다.

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친구의 키는 장대 만큼 크다.
- ② 그 친구의 집에는 사과, 감, 꿀 들이 많이 있다.
- ③ 그 친구와 연락한 지 세 시간만에 만났다.
- ④ 그 친구의 대답이 맞는 지 모르겠다.

정답 ②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쓰는 ‘들’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① 장대만큼: 체언 뒤의 ‘만큼’은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③ 세 시간 만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만’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④ 대답이 맞는지: 의존명사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맞는지’의 ‘지’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는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6. 문맥을 고려할 때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변명(辨明)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 ② 사람의 마음가짐은 대상 인식(人識)에 영향을 끼친다.
- ③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大處)해야 한다.
- ④ 올림픽은 국위를 선양(禪讓)하기 위한 겨루기의 장이다.

정답 ①

변명(辨明 分別할 변, 밝을 명):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 ② 인식(認識 알 인, 알 식):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인식(人識 사람 인, 알 식)
- ③ 대처(對處 대할 대, 곳 처):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대처(大處 큰 대, 곳 처): 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
- ④ 선양(宣揚 베풀 선, 날릴 양):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함.
선양(禪讓 선 선, 사양할 양):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

7.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水]’이 현대 국어에 와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어리다’가 ‘어리석다[愚]’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幼]’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등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이라고 한다.

- ① 사회성
- ② 역사성
- ③ 자의성
- ④ 분절성

정답 ②

·의 소멸이나 원순모음화, ‘어리다’의 의미 변화 등은 언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한다.

8.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리끼 :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 ② 무람없다 : 생김새가 불품없고 세련되지 못하다.
- ③ 국으로 : 제 생긴 그대로
- ④ 짜장 : 과연 정말로

정답 ②

‘무람없다’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를 뜻하는 말이다.

9. 짝지어진 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보조 용언인 것은?

- ①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
 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 ②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 먹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여 먹자.
- ③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련.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 ④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정답 ①

①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본 뜻에서 의미가 떨어져 본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이다. ‘읽어 보거라’의 ‘보거라’는 (동사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며, ‘더운가 보다’의 ‘보다’는 (동사나 형용사, ‘이다’ 뒤에서 ‘-은가/는가/나 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 ②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 먹었다. → 보조 용언
 · 보조 동사‘먹다’ : (일부 동사 뒤에서 ‘-어 먹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말. 주로 그 행동이나 그 행동과 관련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쓴다.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여 먹자. → 본용언
- ③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 → 본용언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 보조 용언
 · 보조 동사 ‘드리다’ : (동사 뒤에서 ‘-어 드리다’ 구성으로 쓰여)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주다’의 높임말.
- ④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 본용언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 보조용언
 · 동사 ‘말다’ : (‘말고’ 꼴로 명사의 단독형과 함께 쓰여) ‘아니고’의 뜻을 나타냄.
 · 보조 동사 ‘말다’ : (동사 ‘-고(야) 말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내 실현 됨을 나타내는 말.

10.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낮익은, 철수의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휴가를 낸 김에 며칠 푹 쉬고 온다?
 ㉣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 ① ㉠ : 쉽표를 보니 관형어 ‘낮익은’은 철수와 동생을 동시에 수식함을 알 수 있다.
 ② ㉡ : 마침표가 없는 것을 보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제목이나 표어임을 알 수 있다.
 ③ ㉢ : 물음표를 보니 의문형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의문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 : ‘작은따옴표를 보니 일이 다 틀렸나 보군.’ 은 마음속으로 한 말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① ‘낮익은’ 뒤에 쉽표가 있으므로 ‘동생’만을 수식한다.

11.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왔다.
 ② 일이 다 잘되서 다행이다.
 ③ 입구에 붉은 글씨가 찍어 있다.
 ④ 생각컨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정답 ③

‘찍다’는 ‘쓰이다’의 준말이다. ‘쓰이-+-어 → 쓰이어 → 쓰여’, ‘찍-+-어 → 찍어’로 쓰인다.

- ① 가까왔다 → 가까웠다 : ‘ㅂ’불규칙 용언은 ‘돕다, 굽다’를 제외하고는 어간의 끝 ‘ㅂ’이 ‘ㄷ’로 변한다.
 ② 잘되서 → 잘돼서 : 되-+ -어서 → 되어서 → 돼서
 ④ 생각컨대 → 생각건대 : ‘-하다’ 앞의 받침이 ‘ㄱ, ㄷ, ㅂ’로 소리가 날 경우에는 ‘-하’가 통째로 줄어 들고, 그 외의 소리일 경우에는 ‘ㅎ’만 남아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만

나 거센소리로 축약된다.

1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사면(四面)으로 두른 것은 토끼 잡는 그물이고, 토끼 은신 수풀 속 쫓는 것은 초동(樵童)이라. 그대 신세 생각하면 적벽강에 전패(全敗)하던 조맹덕의 정신이라. 작은 눈 부릅뜨고 짧은 꿈지 뒤에 끼고 절벽상에 정신없이 달아날 제…….

- ① 小隙沈舟 ② 魂飛魄散 ③ 亡羊補牢 ④ 干名犯義

정답 ②

밑줄 친 부분은 토끼가 정신없이 달아나는 상황이므로 ‘혼비백산(魂飛魄散)’이 적당하다. ‘혼비백산(魂飛魄散)’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① 소극침주(小隙沈舟) : 조그만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 배가 가라앉는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게을리하면 큰 재앙이 닥치게 됨을 이르는 말.
- ③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 ④ 간명범의(干名犯義) : 명분을 거스르고 의리를 어기는 행위.

13. 다음 자료가 간행된 시기에 나타난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太子 | 道理 일우샤 조개 慈悲호라 하시나니
「석보상절」

- ① 뇌와 귀가 단모음화된 시기이다.
- ② 합용 병서와 각자 병서가 쓰였던 시기이다.
- ③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 ④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이다.

정답 ①

제시된 부분의 현대어 뜻풀이는 ‘태자가 도리를 이루시어 자기가 자비하리라 하시나니’이다. 석보상절은 1447년(세종 29)에 완성되어 1449년(세종 31)에 간행되었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의 특징, 즉 중세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으려 한다.

- ① ‘뇌’와 ‘귀’는 15세기에는 이중모음이였다. 15세기에 단모음은 ‘·, ㅡ, ㅣ, ㅏ, ㅑ, ㅓ, ㅕ’ 7개였다.
- ② 합용병서 :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글자.
‘ㄱ’, ‘ㄴ’, ‘ㄹ’, ‘ㄷ’, ‘ㅁ’, ‘ㄴ’, ‘ㄷ’
각자병서 : 같은 자음 두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글자.
‘ㄱ’, ‘ㄷ’, ‘ㅁ’, ‘ㅓ’, ‘ㅕ’
- ③ 15세기에는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주격조사 ‘가’는 중세 국어 이후에 나타나서 ‘이’와 함께 쓰이게 되었다.
- ④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조화가 더 엄격하게 지켜졌다.

14. 다음 작품과 가장 유사한 정서를 지니는 것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ᄇ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ᄇ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 ① 한용운, 「님의 침묵」
- ②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③ 서정주, 「국화 옆에서」
- ④ 김소월, 「진달래꽃」

정답 ④

제시문은 고려가요 「가시리」이다.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유사하다.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대표 작품으로는 고대 가요 「공무도하가」, 정지상의 「송인」, 황진이의 시조,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이 있다.

15. 문맥을 고려하여 ㉠~㉣을 가장 적절하게 감상한 것은?

길동이 ㉠체읍주왈(涕泣奏曰), 이 불초한 동생 길동이 본래 부형(父兄)의 훈계를 듣지 말고자 함이 아니오라, ㉡팔자 기박하여 천생(賤生)됨을 평생 한일 뿐더러 가(家) 중에 시기하는 사람을 피하여 정처 없이 다니다가 천만 몽매(蒙昧)로 몸이 ㉢적당(賊黨)에 빠져 잠시 생애를 붙였더니, 죄명이 이에 미치었사오니 명일에 소제(小弟) 잡은 연유를 장계하옵고, 소제를 결박하여 나라에 바치옵소서. 하며, 담화로 날을 새우고 평명(平明)에 감사 길동을 철쇄로 결박하여 보낼새 ㉣참연(慘然)히 낮빛을 고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 ① ㉠ : 길동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짓고 있군.
- ② ㉡ : 길동이 부형의 훈계를 듣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있군.
- ③ ㉢ : 길동의 죄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하겠군.
- ④ ㉣ : 길동이 감사를 결박하고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군

정답 ③

‘적당(賊黨)’은 ‘도둑의 무리’를 뜻한다. ㉣을 통해서 길동이 한때 도둑의 무리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뒤에 이어지는 ‘죄명’을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다.

- ① ㉠ 체읍주왈(涕泣奏曰) : 눈물을 흘리며 아뢰어 말하기를
- ② ㉡ 팔자 기박하여 천생(賤生)됨을 평생 한일 뿐더러 : 팔자가 사나워 천한 인생이 됨을 평생 한탄할 뿐더러

④ ㉔참연(慘然)히 낮빛을 고치고 : 슬프고 참혹하게 얼굴빛을 고치고

16.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체계적 국제 운송 및 통신 시스템의 도입으로 타 문화권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들과 식품들을 한데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한편,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링곤베리와 파인애플 주스는 코카콜라에, 모직과 면으로 된 옷들은 청바지에, 고원에서 자라던 토종 소들은 저지 젖소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다양성이란 것은 한 회사에서 만든 열 가지의 청바지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 ①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겠군.
- ②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군.
- ③ 될 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 입어야겠군.
- ④ 국제 운송 시스템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켰군.

정답 ②

제시글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7. 밑줄 친 부분에 사용한 표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정지용, 「향수」 중에서 -

- ①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 이것은, / 치명적인 냄새
- ② 명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 ③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 열(熱)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 ④ 피아노에 앉은 / 여자의 두 손에서는 / 끊임없이 / 열 마리씩 / 스무 마리씩 / 신선한 물고기가 /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 쏟아진다.

정답 ③

밑줄 친 부분은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이다.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다. ①,②,④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지만 ③에는 냉온 감각의 대조만이 나타난다.

- ① 후각의 시각화
- ② 시각의 청각화

④ 청각의 시각화

18. ㉠~㉣ 중 밑줄 친 문장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두뇌와 신경을 비약적으로 ㉠확장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양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와 사고 방식,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다.

사회학자 드 세토(De Certeau)는 “기술은 문을 열 뿐이고, 그 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다. 정보 통신 기술은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 ①㉠ ②㉡ ③㉢ ④㉣

정답 ④

㉠, ㉡, ㉢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가져 오는 변화와 관련된 말이다. 밑줄 친 문장은 “기술은 문을 열 뿐이고, 그 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이므로 ㉣이 가장 적절하다.

19.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억양은 소리의 높낮이의 이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억양을 상승 조로 하느냐 하강 조로 하느냐에 따라 의문문도 되고 평서문도 된다. 이 경우 억양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 억양은 이러한 문법적 기능 이외에 화자의 태도와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하강 억양은 완결의 뜻을, 상승 억양은 비판의 뜻을 나타낸다. 억양에는 이처럼 발화 태도와 의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해야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

- ① 억양을 잘 이해할수록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② 억양은 문장의 어순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③ 상승 억양에는 화자의 비판적 태도와 의미가 담길 수 있다.
 ④ 같은 문장이라도 소리의 장단에 따라 문장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답 ③

상승 억양은 비판의 뜻을 나타내며, 억양에는 발화 태도와 의미가 드러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 ① 마지막 문장에서 억양에는 발화 태도와 의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해야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② 억양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문장의 어순을 결정하는 기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소리의 장단이 아니라 억양에 따라 동일한 문장이라도 의문문도 되고 평서문도 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20.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새울세라 청강(淸江)에 일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 ① 작자는 정몽주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 ② 색의 대비를 통해 까마귀를 옹호하고 있다.
- ③ '새울세라'는 '고칠까봐 두렵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수사법상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답 ④

풍유법과 대조법이 쓰이고 있으며, 풍유법은 비유법의 하나이다.

· 풍유법 :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표현 방법으로, 주로 속담이나 격언이 사용됨

- ①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작품이라 알려져 있으나 이견들이 있다.
- ② 색의 대비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까마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
- ③ '새울세라'는 '쌈낼까 두렵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